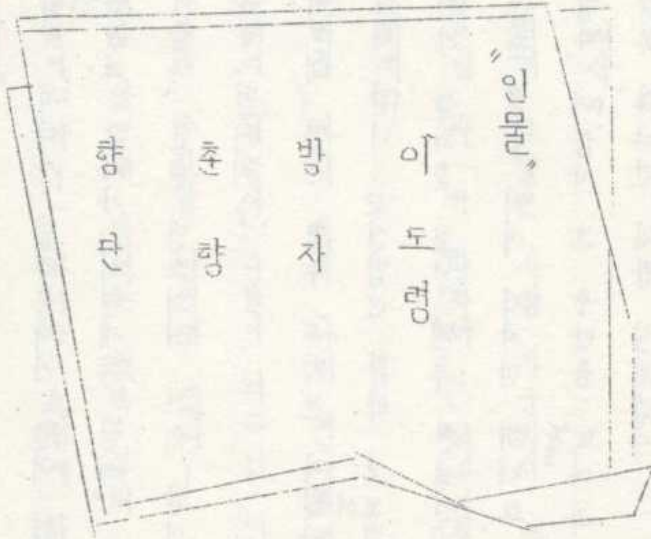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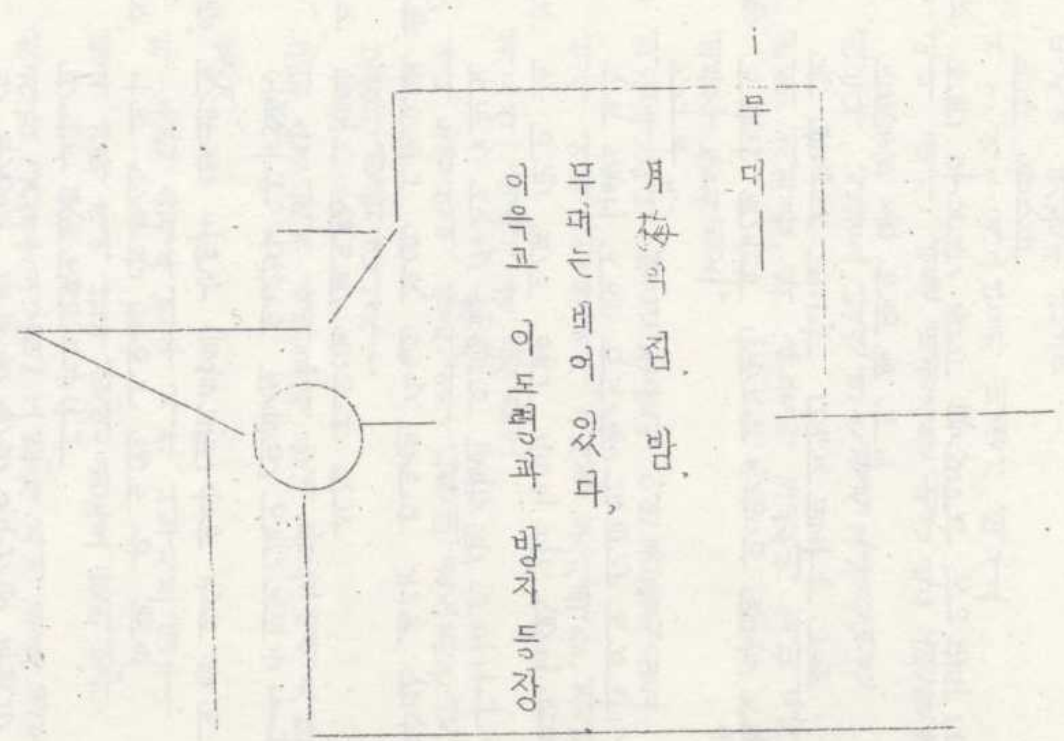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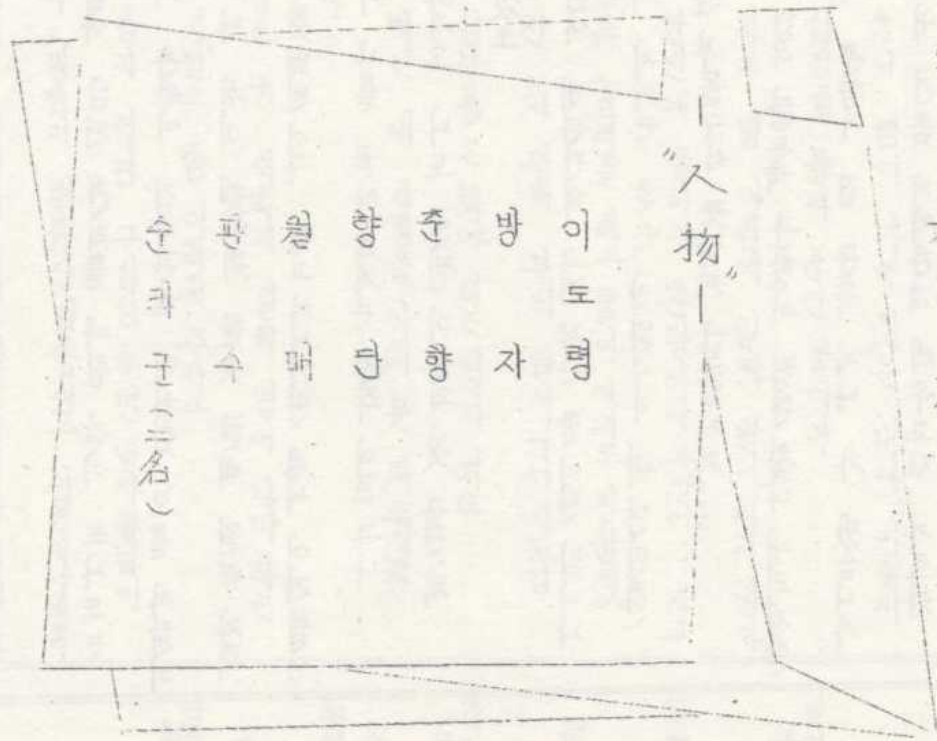
脱線 春香日傳

第一幕 (廣寒樓 前)



무대, 판자루가 무대 한쪽에 서있고 나무가 한그루 그옆 빈자리에 서있다
 마의 오른쪽 앞가슴을 묶어 해친 방자가 못마땅한 얼굴로 희희 거리며 들어온다

第二幕 (月梅집편)



제 1 권 춘향전

脫線春香傳

작가

출판

판형

장수

쪽수

가격

ISBN

978-89-11-00000-0

전2막

1949년 1월 『대중신문』 연재.

동래중학(현 동래고교) 공연.

이후 여러 단체에서 수십 차례. 공연

여기에 실린 작품은 공연용 대본으로 완성시킨 등사본임.

脫線春香傳 탈선춘향전

人物 인물

- 이도령
- 방자
- 춘향
- 향단
- 월매
- 판수
- 순라군 A, B

春香春香

第一幕 '廣寒樓' 廣寒樓

무대

봄빛이 짙인 광한루가 무대 한쪽에 서 있고 나무가 한 그루 그 옆 빈 자리에 서 있다.

막이 오르면 멀리서 방자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.

“이때는 어느 때뇨.

춘삼월 태평진곤에 풍광이 느꼈으니,

계수번을 관세계요 낙화유수 금강변이라.

호남이 예로부터 春風物色은 풍물이 이 一世世에 으뜸이로다.

어라 헤-

노래와 함께 앞가슴을 풀어헤친 방자 못마땅한 얼굴로 섹섹거리며 들어온다.

방 자 허 제-길 풍광이야 과연 좋다만 개발에 징이지. 이꼴에 무슨 봄놀이가 당하나. 전생에 무슨 놈의 죄를 지었기에 밤낮없이 요 모양 요 꼴인지…… (멀리서 이도령 소리 들린다)

도 령 (소리) 애 방자야-. (방자는 대꾸가 없다)

소 리 애 방자야.

방 자 자빠지다가 입주둥이가 늘어졌다. 웬 놈의 소리가 저렇게도 길어. 예-이-.

도 령 이놈아, 길을 인도하려거든 같이 모시고나가는 법이지! (등장)

脫線春香傳

1.
2
막

脫線春香傳